

가난한 예술을 벗삼아 사는 ‘마음부자’의 생활일지

《조금은 가난해도 좋다면》 퍼낸 최용건씨

서울 사는 사람들은 종종 아무 생각 없이 툇게이트를 빠져나간다. 이름하여 서울 탈출. 일상의 무게를 털어 버리고 귀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씩 떠나는 것이다. 강원도 정선이나 동해 같은 쓸쓸한 땅을 한 이틀 떠돌다가 돌아오면 한결 낯기는 하다. 그러나 아무도 그곳에서 살려고는 하지 않는다. 한참 고민을 하다가도 결국 머리를 휘저은 뒤 다시 별 희망 없는 이곳의 삶에 매달릴 것이다.

강원도 인제군, 백두대간 깊숙이 위치한 진동리에 생의 등지를 ‘들어버린’ 최용건씨(57)는 그래서 특별한 사람이다. 그는 1996년 아내와 단둘이 이곳 진동리에 들어왔다. 코란도 지프로 40분은 가야 가장 가까운 이웃과 만나다니 얼마나 골짜기인지 짐작할 수 있다. 물론 그도 처음부터 그렇게 용감하지는 못했다. 1986년 서울을 떠나 춘천을 제2의 고향으로 삼고자 했다. 하지만 호수와 안개가 부산스러운 삶을 어루만져주던 그 소도시도 10년이 지나자 사람들로 시끄러워지기 시작했다. 결국 그는 더 조용한 곳을 찾아 떠나기로 결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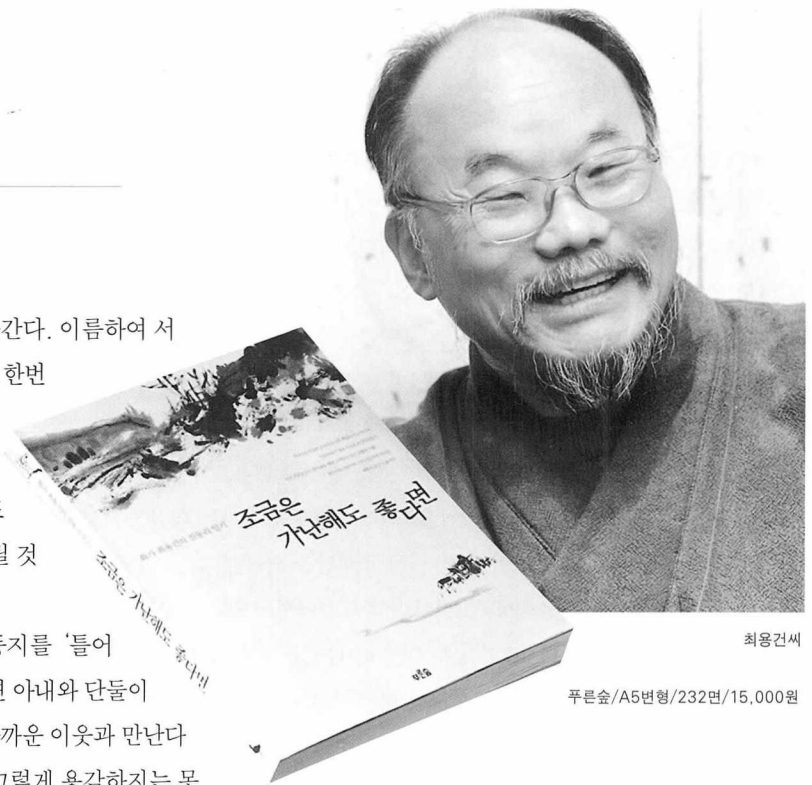
“처음엔 영월이나 홍천 쪽이 좋지 않을까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평야 쪽에 들어갔으면 게으른 품성이 더 악화될까 봐, 일부러 험준한 백두대간 언저리를 택했죠.

“도회에서의 삶이나 이곳이나 다 규칙은 있죠. 그런데 도시의 규칙이 1시간 30분 단위라면, 이곳은 그 간격이 아주 길죠. 멍하게 한 일에 몰두할 수 있는 시간이 반나절 정도는 되니까요. 그러니 견딜 만해요”

여기라면 순수한 마음을 유지한 채 자유롭게 그림을 그릴 것 같습니다.”

그러고도 5년이 지나 이제는 그곳에서의 삶을 한 권의 책으로 묶어내기에 이르렀다. 바로 ‘화가 최용건의 진동리 일기’를 부제로 단 《조금은 가난해도 좋다면》이다. 이 책은 하루 일과를 끝내고 짹짹막막하게 그날 일어난 일과 느낌을 적어놓은 것이다. 그리고 글이 끝날 때마다 붓을 거칠게 휘둘러 진동리 일대를 묘사한 삽화를 곁들였다. 노깡 다리 위로 별이 건너오는 소리가 나면 밤이 된 줄 알고, “밤새워 슬레이트 지붕 위에서 놀던 별들이 징검다리를 넘다가 발을 헛디더 물에 빠지는 소리”에 아침이 온 줄 안다는 말처럼 그렇게 정제된 나날 속에서 뽑아져나온 글들은 대자연에 동화돼가는 한 예술가의 영혼을 차분하게 보여주고 있다.

“시골에서 먹고 살려면 농사를 지어야 했죠. 너무 잘돼 이곳 사람들이 ‘건달농사’라 부르는 감자와 옥수수 재배부터 시작했지만 첫해에는 말아먹었습니다. 지금은 물론 옥수수밭만 1천평이 넘죠. 양봉과 민박까지 합쳐서 겨우 최저생계비 70



최용건씨

푸른숲/A5변형/232면/15,000원

만원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70만원이면 최씨 부부 및 마당에서 키우는 바우와 새치미까지 네 식구가 먹고사는 데 문제가 없다. 하지만 겨울에는 민박 손님도 없고 또 별도 월동을 하니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게 최씨의 설명이다. 사실 먹고사는 것이야 어떻게든 해결되는 것이고, 진짜 문제는 ‘예인’으로서의 삶을 지속하는 일이다. 그는 서울에서 살 때 개인 전시회도 몇 번 연 경험이 있는 화가다. 조선시대 화가 김명국의 필법을 연상시키는 그의 수묵화는 이 책에만 스물다섯 실려 있다. 책에 실린 그림은 1백편에 육박하지만 책을 펴낼 때 그런 삽화고, 진짜 작품은 낙인이 찍혀서 드문드문 박혀 있단다.

“작품은 대개 10분 정도면 완성합니다. 너무 빨리 그리나요? 그러나 병아리를 오래 만지면 손목이 올라서 죽듯, 그림도 화가가 오래 주물럭거리면 화독이 오르거든요. 이왕이면 초서체로 그림을 그린다고 봐주십시오.”

겨울이 깊어지는 요즘 최씨는 그렇게 그림을 그리다 막히면 글을 쓰고, 또 근처 인제도서관에 나가 책을 빌려다 보는 게 일이다. 그러다 보면 삶이 지극히 단조로우지는 감이 든다.

“도회에서의 삶이나 이곳이나 다 규칙은 있죠. 그런데 도시의 규칙이 1시간, 30분 단위라면, 이곳은 그 간격이 아주 길죠. 멍하게 한 일에 몰두할 수 있는 시간이 반나절 정도는 되니까요. 그러니 견딜 만해요.” —강성민기자

절제된 목소리로 문단의 그를 고발해

〈당신들의 감동은 위험하다〉 펴낸 이 환씨

사람들은 끝났다고 말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일이 없었다고, 모르는 척했다. 그런 가운데 “아직 진행중”이라는 미약한 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명원 사태’라 이름 붙은 ‘사건’은 이렇게 저항과 외면, 장탄식을 남겼다. 이 환씨(37, 편집디자인사무실 운영)가 쓴 《당신들의 감동은 위험하다》(새움)는 ‘이명원 사태’를 한 줄기로 삼은 소설이다.

‘이명원 사태’의 전말은 이렇다. 대학원생 이명원이 김윤식 석좌교수(명지대 국문과)가 가라타니 고진의 글을 표절했음을 밝힌 논문을 발표했다. 표절진위를 가리는 작업은 오히려 부진했고, ‘한국현대문학의 태두를 능멸한 죄’가 부상했다. 이명원은 〈자퇴이유서〉를 남기고 다니던 학교를 그만뒀다.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어요. 표절한 사람과 그 일을 무마하기 위해 애쓴 사람들은 그대로 있는데, 사실을 밝힌 사람만 학교를 떠나야 했으니까요.”

그가 소설을 쓴 이유다. 그 이유는 책 서문에도 나와 있는데 “이 상황을 물어버리려는 ‘권력’ 들에 대해 몇 사람의 독자들에게라도 더 사태를 설명하겠다는 ‘불순한(?)’ 의도로 기획했다”고 말한다. 외면과 침묵은 ‘그들’의 강력한 무기이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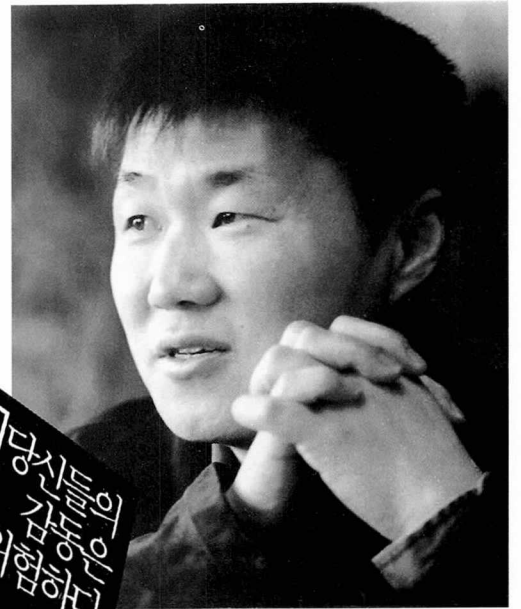
“제 책은 분명 소설입니다. 또 소설로 읽히길 바라요. 하지만 이인서는, 즉 이명원은 그대로 살리고 싶었습니다. 〈자퇴이유서〉를 전제한 것도 이명원이란 인물을 ‘생짜’로 드러내려는 노력이죠.”

이편은 ‘자세하게 설명하기’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이명원 사태’와 더불어 ‘베스트셀러 만들기’도 이야기한다. “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끼어드는 수많은 인자들, 특히 독자들이 잘 모르는 것들을 널리 알리고 싶었다. 예를 들자면 내부사정을 모르는 평론은 무모한 재단이고 편견이다. 그런 평론은 오히려 독자들의 독해를 방해할 뿐이다”는 지은이의 바람과 생각이 두 이야기를 한데 엮었다. 그래서 책제목도 베스트셀러를 비평한 한 평론가의 글에서 따왔다.

그는 ‘사태’를 잘 알고 있고, 출판계 속사정에도 밝다. 글을 쓰고 있고, 편집디자인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책표지 디자인도 직접 했다. 실제 이 소설은 출판사 제의로 시작했고 출판사 게시판에 절반 정도 연재됐다. 그가 이 글을 쓰게 된 데는 절제된 감정으로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큰 몫을 했다.

“감정을 드러내고 분출하는 것은 현실에선 강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감정을 그



이 환씨

새움/A5신/278면/8500원

대로 소설에 옮기면 그 효과는 사뭇 달라 집니다. 효과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소설이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야 하죠.”

담담함을 넘어 감정을 아예 배제한 듯 서술한 그의 글 쓰기는 느낌은 물론 판단까지 다 쳐내고 그저 보여주기에 집중한다. ‘어떻게 이렇게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말할 수 있을까’ 싶게 빠른 속도로 설명하고 보여준다. 이는 그만의 독특한 문체이자 전략이다.

“수식어와 묘사적 표현을 절제해요. 독자들을 내용과 대화 속에서 생각하게 할 뿐 문장 속에서 생각하게 하지는 않죠. 빨리 읽힌다면 그것은 소설 속 인물이 실제 독자의 주변인물과 잘 연결되기 때문이겠죠.”

그는 인터뷰 내내 책 내용에 대해서는 외려 말을 아끼는 편이었지만, 한가지 분명하게 밝힌 게 있다.

“제 책은 분명 소설입니다. 또 소설로 읽히길 바라요. 하지만 이인서, 즉 이명원은 그대로 살리고 싶었습니다. 〈자퇴이유서〉를 전제한 것도 이명원이란 인물을 ‘생짜’로 드러내려는 노력이죠. 소설 속의 주변인물들 때문에 허구로 인식되지 않도록 노력했어요.”

그는 이 책을 ‘사회참여문학’과 ‘개혁문학’으로 설명한다. 그리고 평단의 영향력을 덜 받은 후배들에게서 그 싹을 발견한다고 했다. ‘세대교체’를 기다리는 그에게 진지한 눈빛 반짝이는 후배들은 큰 희망이다.

—차정신기자